

사람 물리는 터미널·야구장 연결 계획 없어 지하철 효용성 논란

시민들 “당연히 연결될 줄 알았는데... 대중교통 정책에 문제”

“버스노선 개편보다 지하철 지선 건설·터미널 이전이 더 절실”

광주시민들의 관심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추진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보다는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도심 외곽 이전 여부나 야구장(기아챔피언스필드)~광천동 버스터미널~도시철도 연계 지선(支線) 건설 여부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이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과 야구장을 경유하지 않고, 2023~2025년 단계별 개통될 2호선 노선에도 이들 공간이 포함되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지선 건설 또는 2호선과 연계한 터미널 도심 외곽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정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013년 2호선 노선 확정 전 광주시가 터미널·야구장 노선 제외 지적을 받고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경우 2호선 개통 전 3년에 걸쳐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개편 논의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추진되는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운영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광천동 버스터미널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광천동 버스터미널-야구장으로 연결되는 지선 건설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를 두고 향후 광주 교통 관련 최대 관심사가 명쾌하게 정리된 게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비판적 여론이 몰아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곧 착공에 들어갈 2호선이 광주 5개구(區)를 거치며 주요 지점을 잇는 타원형 순환선이지만, 백운광장역에서 효천지구까지 아래로 쭉 뻗은 지선을 노선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광천동 버스터미널, 야구장을 잇는 지선은 건설 논의조차 없다는 점은 논리가 약해 보인다.

또한 도시철도가 2개 노선이 구축되는데 종합버스터미널·야구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선 건설 계획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버스터미널을 도심 외곽으로 옮겨 2호선과 연계하고 광천동 교통 체증 해소라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계획이 아니었느냐는 시민 기대가 작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예

상된다.

예식장·백화점·버스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 지옥으로 변하는 광천동을 차를 몰고 지나가야 하는 시민들, 야구 경기 열리는 날 야구장 주변을 통과해야 하는 시민들 입장을 헤아려봤다면 이해하기 힘들어 보인다.

광주시 입장은 그러나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광천동 버스터미널 외곽 이전과 도시철도 지선 건설을 통한 버스 터미널 및 야구장 연계 계획은 검토한 적도 없으며, 장기적 검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태조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도시철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작업이 추진되지만, 이 과정에서 버스터미널 이전이나 지선 건설은 전혀 고려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남주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은 “터미널, 야구장을 잇는 도시철도 지선 건설의 경우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고, 정책 결정도 쉽지 않은 대형 이슈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호선 건설에만 집중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소진호 철도정책 담당 사무관은 “야구장, 버스터미널을 연계하는 지선 건설은 논의도 계획도 없다. 다만 2호선 완전 개통 이후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가 담당자 의견”이라고 했다.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소유자가 금호고속이라는 점에서 광주시 정책 결정만으로 도심 외곽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1·2호선은 모두 광천동 터미널과 야구장을 노선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2002년 2호선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터미널·야구장 경우 노선이 담겼으나 이후 2호선 건설 찬반 논란, 노선 논란 등이 이어졌고 광주시가 다핵화되면서 이들 지점을 잇는 확대 순환선으로 변경되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 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신뢰 높여”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을 한 배경에는 ‘가짜뉴스’로 인한 허위정

보 유통 및 민심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들루아르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줄 때마다 ‘훗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새로 쓰인 시기로 재임 시기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응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

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친문·장관 잇단 불출마 선언 與 거세지는 ‘중진 물갈이론’

영입 인사 김수현 전실장 불출마 선언

유은혜·김현미 장관은 불출마설 일축

강기정 정무수석 정국 현안파라 유동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중진 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당내에서는 의원 겸직 장관들의 불출마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당장, 유 장관과 김 장관 모두 불출마설을 부인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 보도는) 제게 확인하지 않고 한 것이다. 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왔는데 지금 출마 여부를 결정해 이야기할 시기도 상황도 아니다.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측도 “김 장관의 출마 의지는 확고하지만 임명권자의 뜻을 따른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달랐다.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장관은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이) 맞는 것 같다. (대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유 장관 같은 경우 약간 변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시간 뒤 이해식·이재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두 장관이 불출마 의사가 대표에게 전했다는 내용의) 관련 기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처럼 당사자들과 충분히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장관과 김 장관의 불출마설이 불거진 배경에는 총선을 앞두고 두 장관을 교체할 경우 인사청문회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와 두 장

관의 지역구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의원 겸직 장관뿐 아니라 친문 인사 중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부원장이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정국 현안과 맞물려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 수석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워낙 중앙 정국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 아직 최종거취를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도 강 수석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강 수석이 최근 현안과 관련, ‘(그것은)내년 3~4월까지 청와대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밝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5선의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초선 서형수 의원의도 이미 총선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다.

이에 ‘계파 무관 중진 물갈이론’이 힘을 받으면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그야말로 ‘싱싱생생’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중진 물갈이론이 비주류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내 모 중진 의원은 “지도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따르기로 마련”이라며 “친문 인사들을 심는 형식이 될 경우, 전체 판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이 TK(대구·경북) 공략을 위해 ‘전략공천 1호 인사’로 지목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실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해한 대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 달 청와대의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협지에 출마해야 하는 김 전 실장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정권의 핵심 인사가 정치적 헌신을 외면했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9 The Great Battle of Myeongnyang Festival

명량대첩축제

2019. 9. 27 (금) ▶ 29 (일) 3일간

진도군 녹진관광지·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일원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

주최 | 전라남도 Jindo 진도군 해남군
주관 |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후원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애국 한국지역진흥재단